

ART BUSAN

GALLERY
SERENE
SPACE

Booth NO.

C - 18

VIP PREVIEW MAY 8 | BEXCO | MAY 08-11. 2025

gallery_serenespace



BON KOO

CHO KWANG HUN

JEONG EUN JU

KANG JUN YOUNG

LEE GUN HEE

WANG HYUN MIN

Bon Koo

GALLERY
SERENE
SPACE

BON KOO(B.1972)작가는 서울예고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뒤 뉴욕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8회의 개인전과 100회 이상의 그룹전에 참여하며 국제 아트페어에서도 꾸준히 주목받아왔다. 2005년 뉴욕의 Drew대학교에서 첫 개인전 <The 1st Exhibition>을 시작으로, 뉴욕, 서울, 부산 등지에서 개인전 8회와 100회이상의 그룹전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확립했다. 작가는 2024년 12월 박서보, 이우환, 김학균 등의 작가들이 전시하는 뉴욕 첼시에 위치한 블루칩 작가 전문 Gallery AP Space에서 전시를 열었다. 그의 작품은 Drew Theological School, Paradigm Art Inc.와 JW Marriott Hotel Seoul 등 여러 기관과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작품을 통해 신앙, 인간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은 고찰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여러 국제적 미술 전시에도 참여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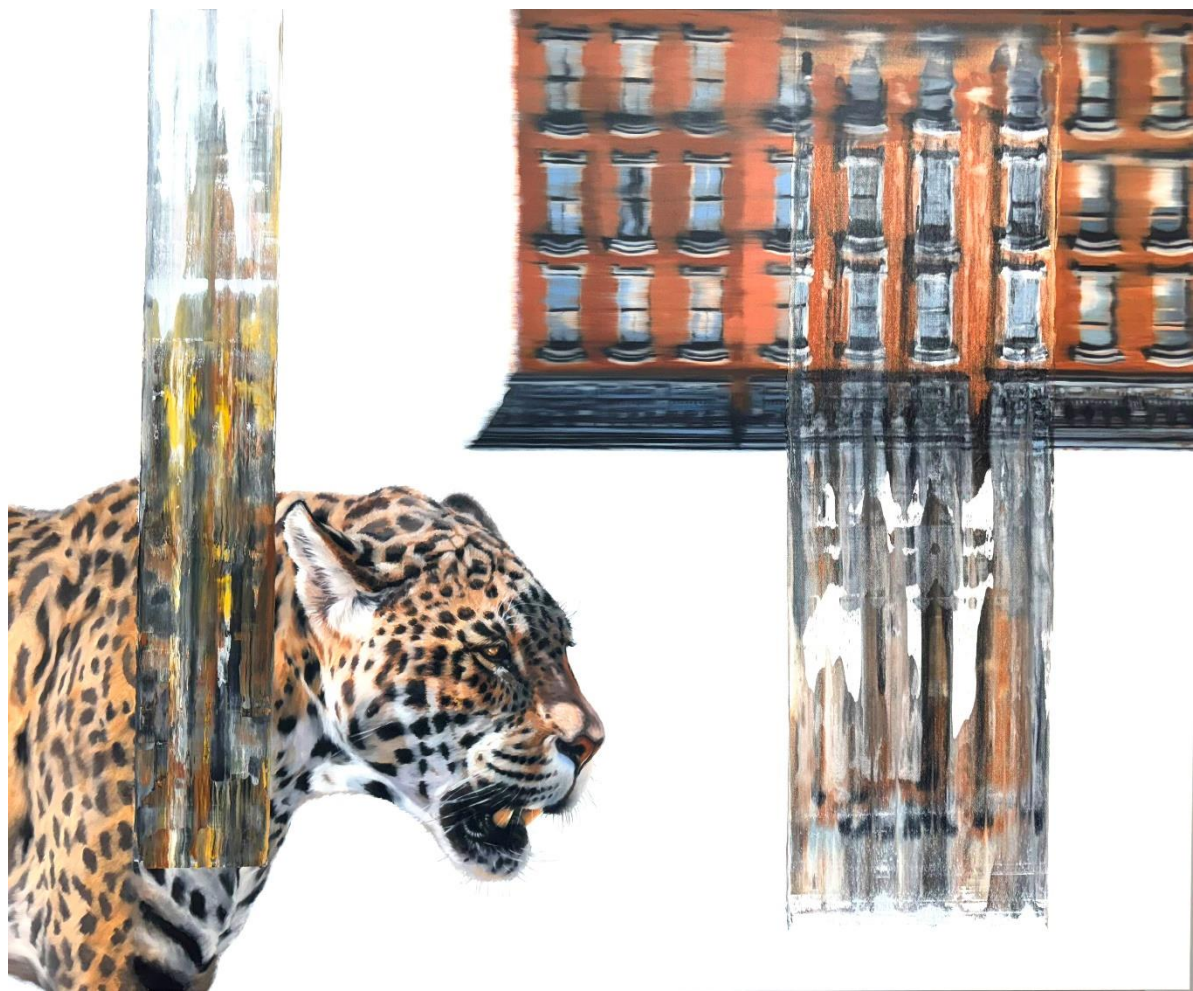
작가는 동물이라는 매개체로 자신의 삶과 경험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3년, 생존만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정글과 다름없는 치열한 생존의 장'이라 표현하며 거주하던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한 Welcome to the Jungle 시리즈를 선보였다. 2024년 신작 Déjà vu / Jamais Vu 시리즈는 생존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잊고 지냈던 작가의 꿈과 이상을 회상하며 작가의 내면적 독백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스퀴지 기법을 활용하여 화면이 정지된 듯한 묘한 긴장감으로 생각에 잠긴 듯한 상황을 연출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며 자연스레 잊어가다 문득 떠올리게 되는 것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며 선택적 기억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Language Disorders
Déjà vu/Jamais Vu;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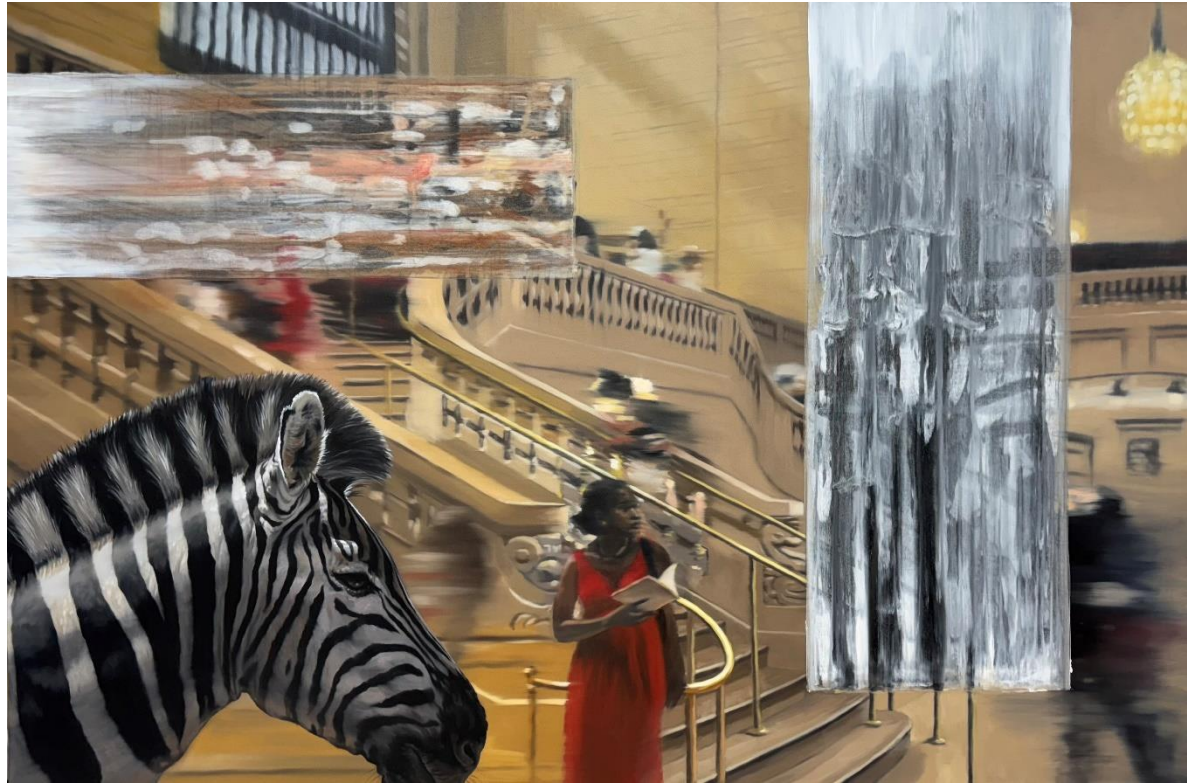
152.5 x 183 (cm)
Oil on Canvas
2024





Obsession
Déjà vu/Jamais Vu; series

183 x 152.5 (cm)
Oil on Canva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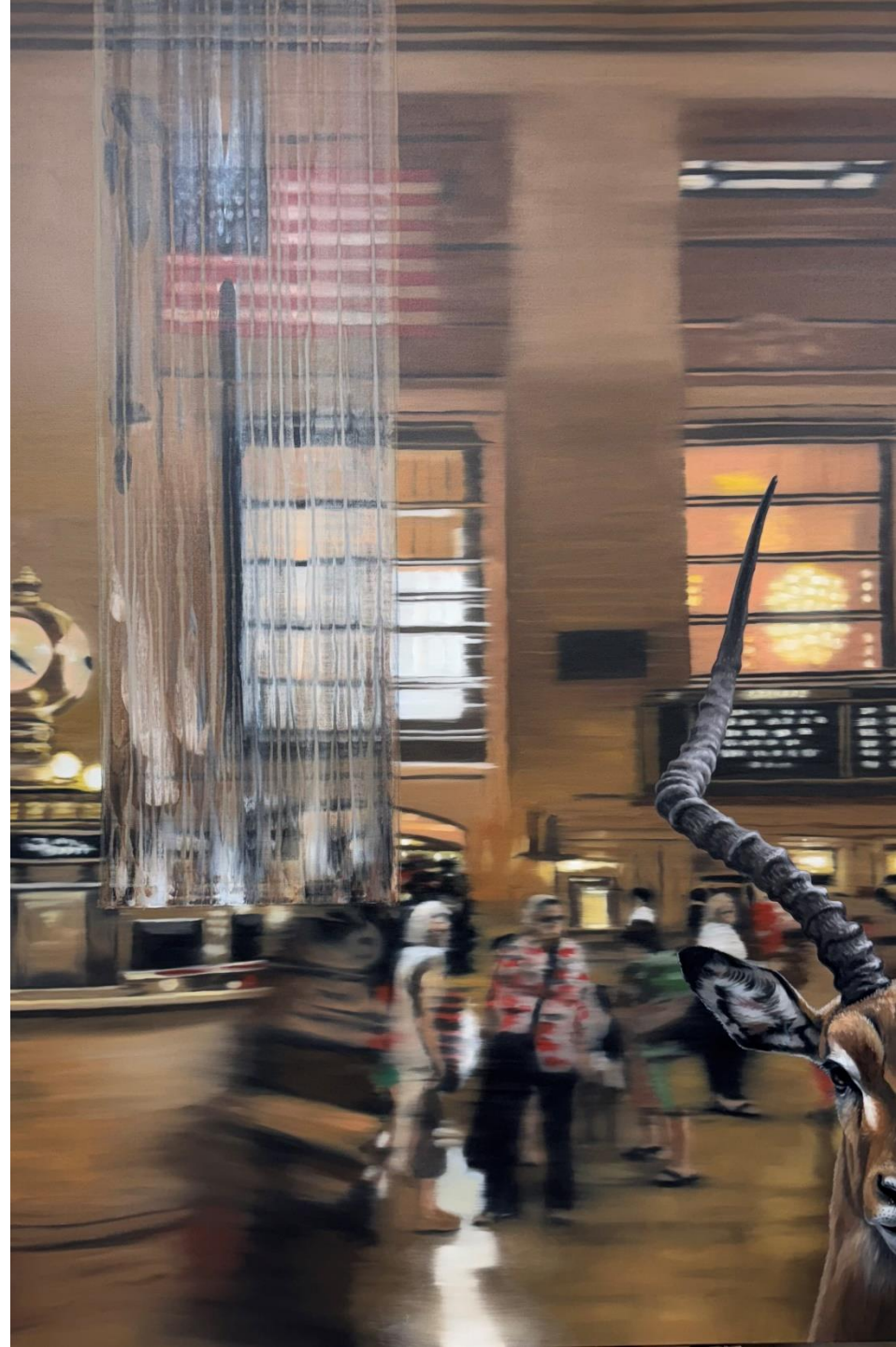


A Lady in Red
Déjà vu/Jamais Vu; series

182.88 x 121.92 (cm)
Oil on Canvas
2024

An Alien
Déjà vu/Jamais Vu; series

121.92 x 182.88 (cm)
Oil on Canvas
2024



Cho Kwanghun

GALLERY
SERENE
SPACE



조광훈(B.1985) 작가는 건국대학교 공예학과 도자전공,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했다.《Observer》,한국공예관,청주,2023, 《Ordinarydreams》,아트링크갤러리,서울,2019, 《MEDITATORS》,조은숙갤러리,서울, 2018, 《PUNISHMENT》DURUARTSPACE,서울, 2016 개인전을 가졌으며 《정중동:드러나는한국미의정신》,시가라키도예미술관,시가라키,일본 2022, 《흔행일치》,한국공예관,청주, 2022, 그 외 국내외 25번의 단체전을 활동을 가졌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센터퀸즈W에 부산에서 최초로 세라믹의 주재료의 한계를 넘어서 브론즈를 활용한 대형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작가는 계속해서 독창성을 추구하고 예술적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작가 조광훈은 코일링 기법을 활용하여 흙 반죽을 길쭉하게 늘리고, 아래에서부터 쌓아가며 독특한 형태의 작품을 창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속이 비어 있는 독특한 완성이 탄생한다. 작가는 산책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거나 아이와 놀면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나 특이한 포즈에서 영감을 받는다. 또한 작가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과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이상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담아내고자 한다.

*해당 작품은 참고용이며, 옷 컬러와 장식이 변형된 동일 작품으로 출품됩니다.

해당 작품 문의 가능합니다.



Boy with a telescope

350x280x820mm

Ceramic

2025





Jeong Eunju

GALLERY
SERENE
SPACE



정은주(B.1964) 작가는 계명대학교에서 서양화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독일에서 국립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에서 공부했다. 작가는 서울, 독일, 일본등 국내외 무대로 아트페어와 그룹전에 참가했으며 'Into The Color', '숨'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며 대구 출생 아티스트 Dartist 타이틀로 활동 중이다.

작가는 회화작업에서 변화되어진 나무조형작업과 캔버스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여러 번 겹을 올려 표현되어지는 방식의 미니멀한 작업을 해왔다. 스프레이로 올려지고 덮여지는 캔버스의 색들에서 숨이 덮여지는 듯한 스스로의 느낌에서 한계를 느낀 작가는 스스로 추구하는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회화란 무엇인가란 문제에 봉착하며 다시 회화로 회귀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숨'과 '결' 연작은 오로지 내면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공하지 않은 생지에 올려진 물감이 번지고 흘러내리는 흔적이 작가의 내면이 풀어지는 과정과 같다고 말한다. 작가의 색면 회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번짐과 흘러내림이 주는 무한한 편안함과 내면에 충실한 작업이 주는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

Untitled

162.2 x 130.3 (cm)
Acrylic on canvas
2025





Untitled

60.6 x 50.5 (cm)
Acrylic on canvas
2024



Untitled

1116,8 x 91 cm
Acrylic on canva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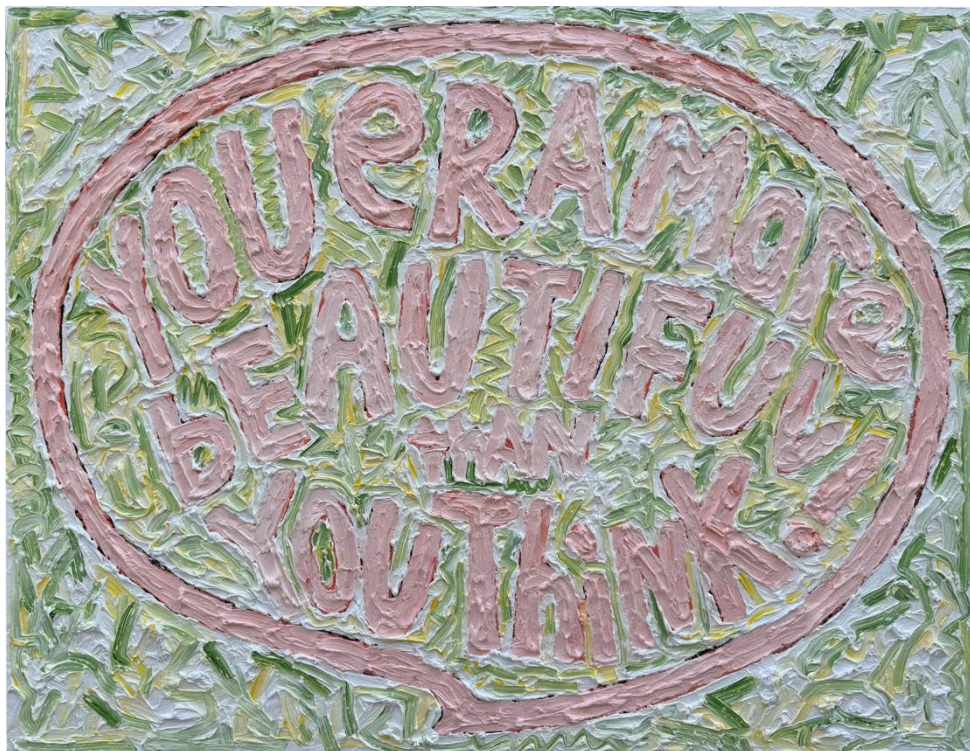
Kang Junyoung

GALLERY
SERENE
SPACE

강준영(B.1979)작가는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했다. 2006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클레이올림픽 대상을 시작으로, 아르코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전시공간에서 수십차례의 전시를 선보였고, 대만,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지역 뿐 아니라, 영국, 미국 등의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전시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Art Central HK 아트 센트럴 홍콩을 비롯 다양한 국제페어에도 참가해 아시아 미술인들에게 큰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현재 그의 작품은 한국 마사회, 국회의사당, 한양림 현대도자 미술관 등지에 소장되어있다.

작가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예, 페인팅, 설치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감성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창작한다. 작품들은 사랑, 희망, 가정과 같은 주제를 텍스트로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강렬한 색채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달항아리 작품은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백자 달항아리와는 다른 미학을 갖추고 있으며, 힙합, 그래피티, 팝아트 영향을 받아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현대적이고 경쾌한 매력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작가는 긍정, 희망,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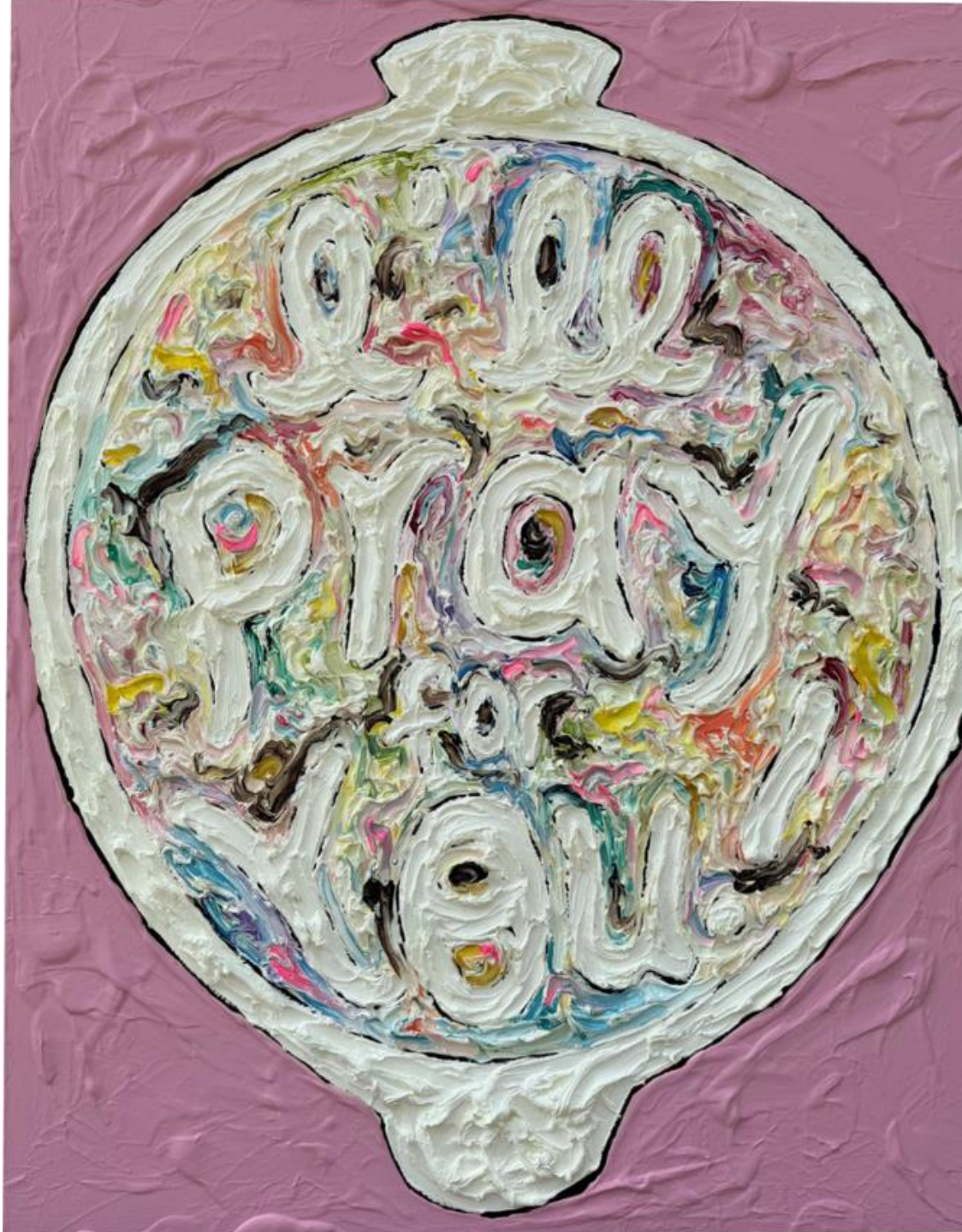


"O"와"X" 그리고 "우리
(Yor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Speech bubble series

116 x 91 (cm)
Oil painting on wood
2025

"O"와 "X" 그리고 "우리"
I will pray for you!
Moon jar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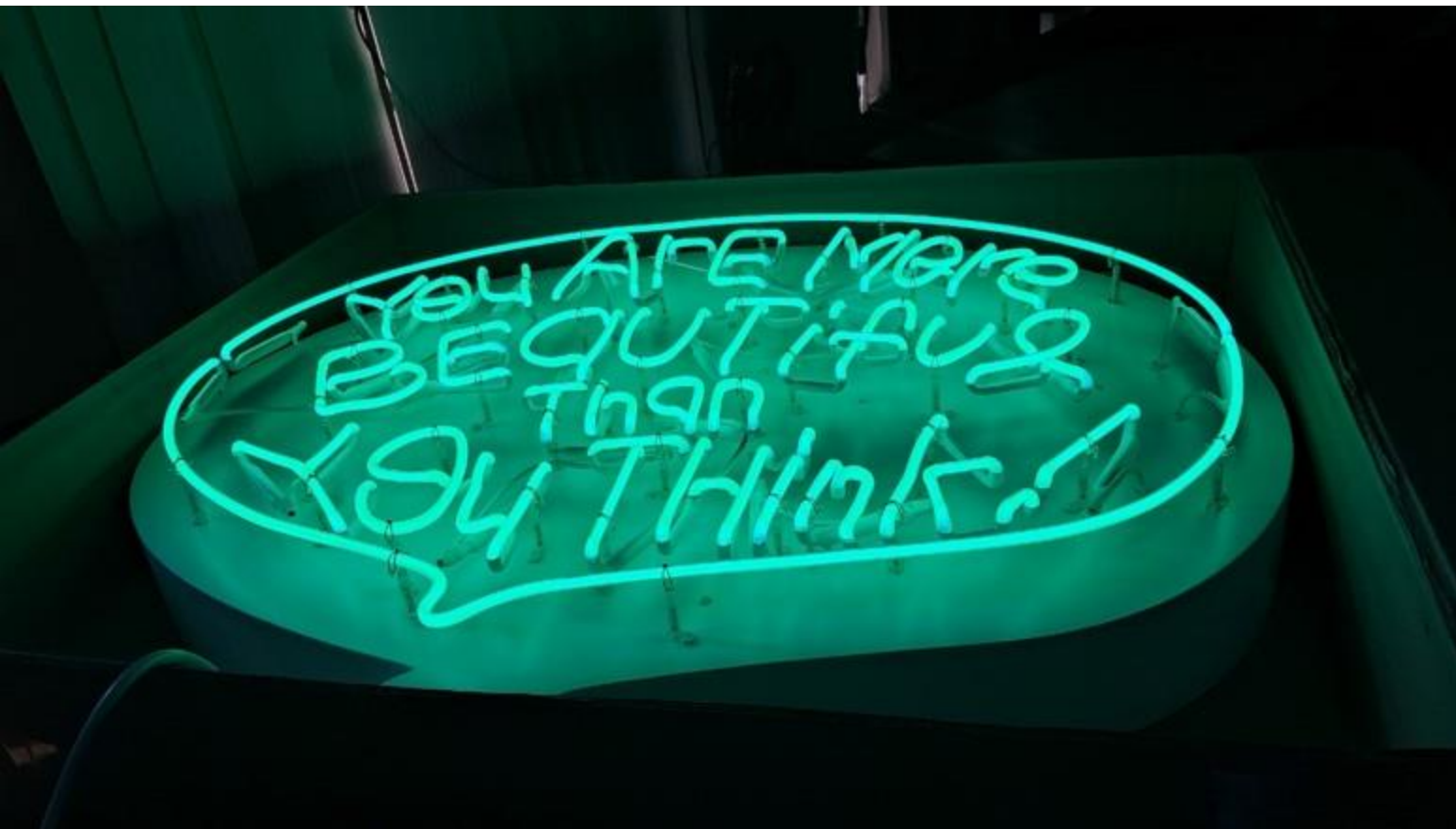
91 x 71 (cm)
Oil painting on wood
2024





눈이올때 우리 다시 만나요
드로잉 시리즈
Titan green pale series

88X113 cm
Acrylic painting on mirror
Ed 1/10
2025



“눈이 올 때 우리 다시 만나요”
네온 드로잉 시리즈, green series

77 x 97 (cm)

Neon

2025

Ed.

Lee Gunhee

GALLERY
SERENE
SPACE

이건희(b.1963, Korea)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와 미술학 박사를 취득했다. 1966부터 2023년도까지 총 32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2023 내추럴 레플리카 수림문화재단, 서울, 2023 선물전 아트핀 갤러리, 서울, 2022 Hanji-paper 영국(한국 문화원), 영국, 런던, 그 외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으며 현재 부산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의료원, 부산 남구청사, 부산영도구청사, 부산시청, ㈜효성에서 작품을 소장중이다.

작가는 직접 제작한 수제한지를 사용해 작업하며, 한지를 캔버스처럼 만들고 신문지 조각을 포함한 재료들을 넣어 새로운 매체를 형성한다. 작품은 종이의 기록매체로서의 의미가 SNS로 변화한 현대적 소통 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신문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한지 위에 신문지 콜라주를 삽입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점을 찍어 작업을 진행한 다. 종이의 물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며, 기호와 물질적 흔적들이 교차하는 공간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원) 사이 사이에 보여지는

오) 조각난 구름 사이

(원, 오) 44 X 27 (cm)
수제한지에 아크릴 채색
2025

조물조물

38 X 25 (cm)
수제한지에 아크릴 채색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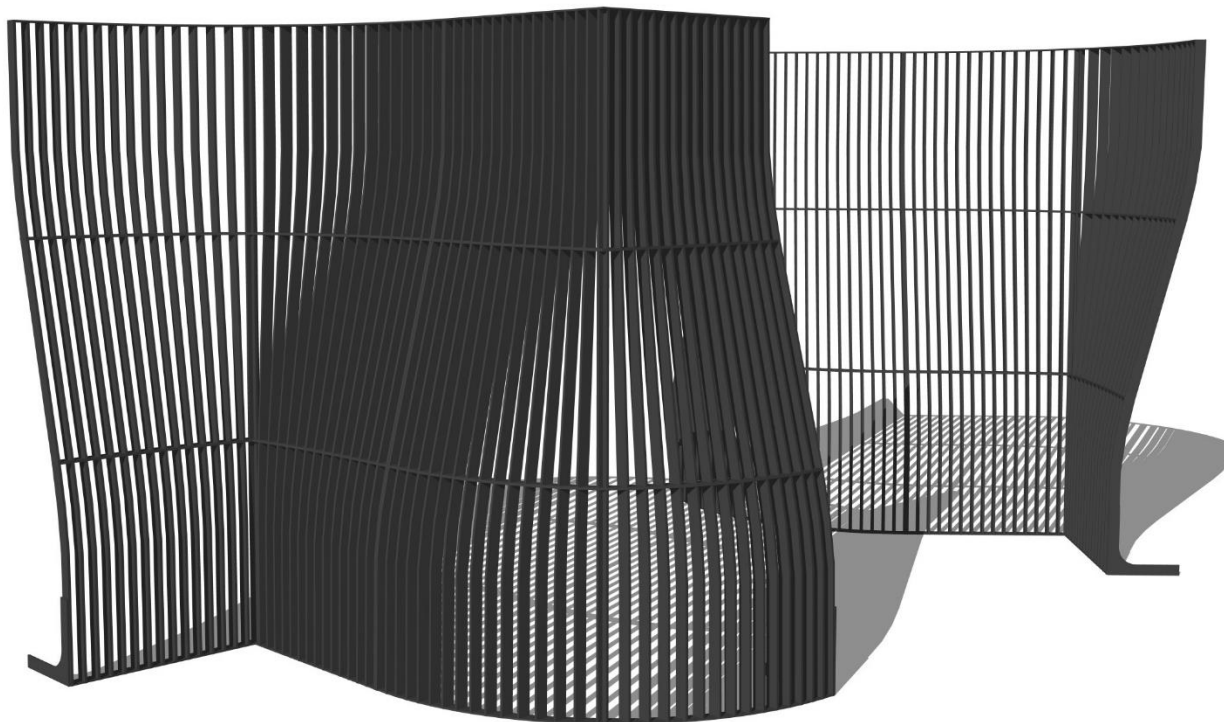
Wang Hyunmin

GALLERY
SERENE
SPACE

왕현민(B.1984) 작가는 경성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와 동대학교 산업공예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현재는 홍익 대학교 공예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다. 그는 《구조 構造》 갤러리 서린스페이스 /부산 2023, 갤러리M/ 부산 2022,이외에도 국내에서 10번의 개인전과 44번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예술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 'T ods'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EOUL x BTS 서울관광홍보 2023 서울 에디션에서도 협업에 참여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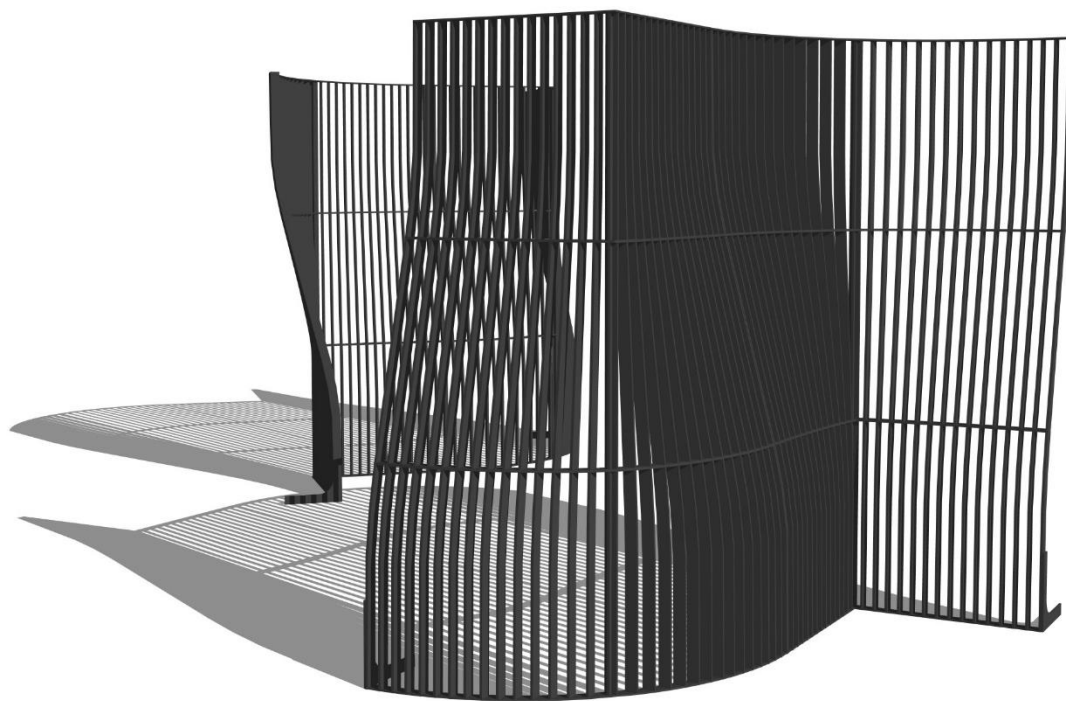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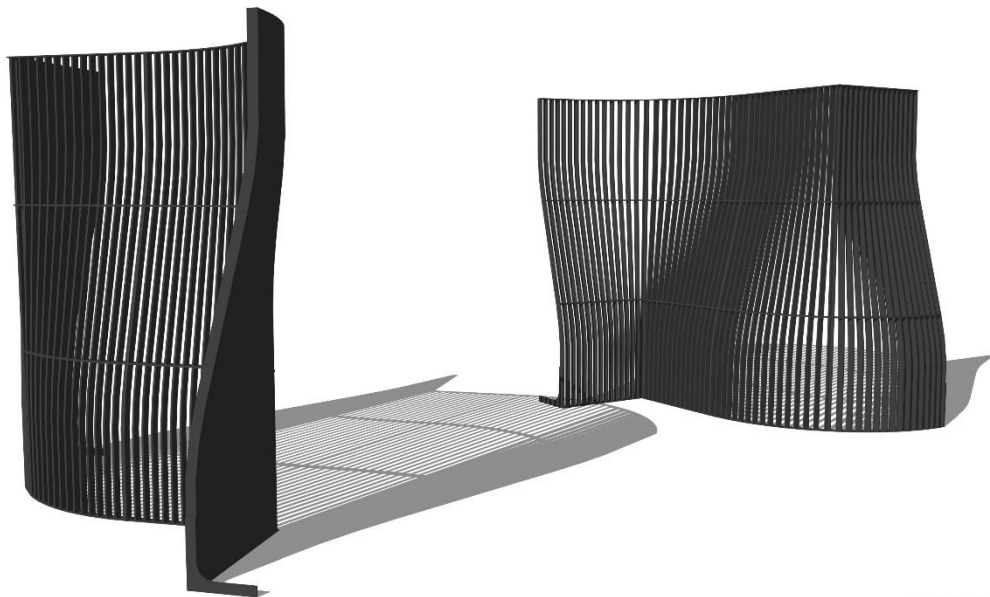
작가 왕현민의 작업은 건물의 골조에서 영감을 받아, 나무 스틱을 활용하여 벤치를 만들었다. 그는 나무 스틱의 길이를 조절해 구조적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입체적 곡선을 창조했다. 이러한 작품은 도형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아름다움을 담아내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있다. 왕현민은 작품을 통해 특정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모양을 찾아낸다. 그는 관람객에게 낯설지 않은 외형과 그 속의 숨은 구조를 통해 세상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Unwaved Wave

1000 x 400 x 1500 (mm) / 4pcs
Birch Plywood, Urethane Paint
2025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 입니다.



